

중기 돕는 든든한 성장기반 제공

전주시, 팔복동 첨단벤처산단
중노숙동 전주정보산업진흥원 내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

전주시는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 중소기업과 청년창업가를 키울 든든한 성장기반을 제공한다.

시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생태계 조성 및 창업기업에 대한 거점 공간 마련을 위해 팔복동 전주첨단벤처단지 및 중노숙동 전주정보산업진흥원 내에 각각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의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전주첨단벤처단지 지식산업센터는 오는 2019년까지 총 288억원이 투입돼 영세한 규모의 총 70여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과 지원·복지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또 오는 2020년까지 총 243억원을 투입해 신성장산업분야 제조업체와 지식산업 관련 업체, 3D프린팅 등 정보통신산업 기업 60개사가 입주할 수 있는 공간과 창업카페, 3D프린팅지원센터 등을 갖춘 전주 신산업융합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교육과 창업지원, 인력 양성, 수출지원에 적극 나서는 한편 R&D와 자금, 근로자복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윈윈 기업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청년행복' 청사진 구상

26일 전주시장실에서 '전주시 청년실태조사 및 청년희망 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김승수 전주시장이 정책위원들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26일 전주시장실에서 '전주시 청년실태조사 및 청년희망 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김승수 전주시장이 정책위원들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이와 관련 '기업 기 살리기' 프로젝트를 업그레이드 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자금과 관료, 투자 등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해결해 주는 기업애로솔루션 전담반을 가동, 창업초기 신

생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창업기업을 집중 방문하고 기업지원책을 안내하는 '창업기업 집중 기(氣) 살리기 인큐베이팅'도 추진할 예정이다.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은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중소기업을 작지만 강한 독일형 강소기업으로 키우고 활기찬 청년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든든한 성장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社 告

제4회 무주군 체육회장배
전국 스키·스노보드 대회

기간: 2018년 1월 30일(화)~1월 31일(수)
장소: 무주 덕유산리조트 스키장

전주매일신문이 동계스포츠 인구 저변확대와 유망주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무주군수배 스키·스노보드대회'를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최: 전주매일신문, 무주군
- ▲주관: 전북스키협회
- ▲후원: 전북도, 무주스키협회, 무주덕유산리조트
- ▲참가지역: 스키(만 10세 이상), 스노보드(고교생 이상)
- ▲참가접수: 이메일(jjmaeil1@hanmail.net) 또는 팩스(063-288-9703), 홈페이지(www.jjmaeil.com)
- ▲문의: 전주매일신문 문화사업국(063-288-9700)

전주매일

밀양 화재참사... 원인은? > 관련기사 2면

송하진 도지사, 응급실·요양병원 긴급 점검

밀양의 한 병원에서 불이 나 대형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송하진 전북 지사가 전북지역 병원에 대해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다. <관련기사 3면> 지난 26일 송하진 지사는 도내 병원 응급실과 요양병원에 대한 지도 점검을 지시하고, 전주병원 응급실과 늘사랑요양병원을 잇따라 방문해 소방시설과 피난대책 등을 살폈다. 이는 이날 밀양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자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함이다. 송 지사는 병원 관계자들에게 "화재가 나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아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크다"며 "평상시에 항상 피난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피통로와 소방시설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전북소방본부도 도내 요양병원 82개소와 응급실이 있는 병원 23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나섰다. /김진성 기자

제4회 무주군 체육회장배
전국 스키·스노보드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합니다.

칭찬합니다!

용지 사용부터 친환경용지를 고집하는
EBS의 교육이념을 칭찬합니다

드래내지 않고 목욕이 친환경을 실천하는 착한기업이 있어서 칭찬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대표 교재인 EBS 교재입니다. 친환경용지로 제작된 친환경 교재 사용하면 우리 아이의 인성은 물론 환경뿐만 아니라 교재에도 저탄소로 제작된 친환경 교재도 도움이 됩니다. 친환경용지 1톤을 사용하면 이산화탄소 45%, 대기오염 물질 74%를 줄일 수 있으며 하루 2,700톤 정도 폐지를 재활용하면 매일 30년 생 소나무 43,000그루를 살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간 100만톤 중이 수임에 따른 외화반출을 막을 수 있고 친환경 산업 목적으로 창조경제와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진짜 GR인증 받은 친환경용지로 만든 친환경 교재는 일반용지로 만든 일반교재보다 우리 아이들과 환경, 가계경제 그리고 국가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통해 더욱 많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목욕이 친환경을 실천하는 착한기업을 계속 발굴해서 칭찬 릴레이를 이어가겠습니다.

녹색인업
6rg 한국자원순환단체연대의회
Korea Recycling Corporate Coalition
Global Leader in Paper 전주페이퍼

박노완 호찌민 총영사
전북 국제관계대사에 임명됐다.

박노완(58·사진) 베트남 호찌민 총영사가 전북도 국제관계대사에 임명됐다. 전북도는 지난 26일 "동남아 국제관계에 정통한 박노완 총영사가 전북도의 국제통상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기반 등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실 출신인 박 신임 국제대사는 전주공고와 한국외대 베트남 어과를 나와 외무고시(24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뒤 통상교섭본부 국제에너지 물류과장, 베트남 공사 직무대리, 호찌민 총영사 등을 지냈다. /김진성 기자

'JB카드 새출발 페스티벌'
내달 16일까지 진행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지난 26일 무술년 새해를 맞아 마련한 'JB카드 새출발 페스티벌'을 오는 2월 16일까지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 행사는 실적별 현금 지급, 경품 추첨 행사, 가맹점 할인 등 다양한 혜택으로 고객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JB개인카드 고객들은 마트나 백화점, 전통시장, 슈퍼마켓, 온라인 업종에서 건별 10만원 이상 결제 시 이용액의 10% 상당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구매 영수증, 카드를 지참해 전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면 3만원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고,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은 홈페이지 응모를 통해 모바일 쿠폰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북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민근 기자

청년들이 살맛나도록...

도, 정책시행계획 발표

채용정보서비스 확대
창업 실패자 재기 도움
청년예술인 생활안정 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 협의체 활성화 등
취업·창업·문화·복지
삶의 질 등 5개 과제 마련

관심있는 청년인력 지원과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귀농귀촌 청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채용정보서비스 확대와 도의 3대 핵심정책분야 인력 양성 및 성장여건 조성이다.

창업분야는 창업공간 조성으로 창업기회를 제공, 창업성실 실패자의 재기지원과 세대융합형(청년-장년) 창업팀 발굴로 초기부터 중단계를 집중 지원하는 안정적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청년창업 진입을 유도한다.

문화 여기분야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및 청년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이다.

복지 분야는 청년 적합 자활기업에 컨설팅 제공 및 전세금 저리지원 등을 통한 탈 빈곤 도모와 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대학생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등 청년복지 환경을 조성한다.

전북도는 지난 26일 올해 청년중심의 정책실현을 위해 제4회 청년정책위원회(공공위원장 최정호 정무부지사, 강영숙 군산대 교수)를 열어 분야별 청년정책과제에 대한 2018년 청년정책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2018년 청년정책시행계획은 청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에 근거한 연차별 첫 시행계획으로 청년의 문제를 사회구조적, 경제적 문제로 인식해 청년들의 안정적 삶 보장 및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수립됐다.

그동안 청년들의 협의체인 청년정책포럼과 청년단체 의견수렴 및 각 부서별 협의·조정등을 통해 청년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실행화 할 수 있도록 구제와 했다.

이번 시행계획에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일자리 매칭을 통한 취업연계강화,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 청년 삶 전체에 주안점을 두었다.

청년정책시행계획의 5개 분야는 취업 및 고용, 창업, 문화·여가, 복지·삶의 질, 거버넌스이다.

취업 및 고용분야는 영농창업에

/김진성 기자